

#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화기술적 방법

김정근\* · 이용재\*\*

## <목 차>

- |                   |                           |
|-------------------|---------------------------|
| I. 서 론            | 3. 접근의 순서                 |
| II. 질적연구          | IV.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의 적용       |
| 1. 질적연구는 돌연변이인가?  | 1. 과학주의의 극복과 연구방법의 다양화    |
| 2. 단선적 과학주의에서의 탈피 | 2. 한국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사실기술    |
| 3.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 3. 현단계 한국도서관 현장과 문화기술적 방법 |
| 4. 질적연구의 방법과 자료   | V. 결 론                    |
| 5.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    | 참고문헌                      |
| (1) 일반성의 문제       | Abstract                  |
| (2) 객관성의 문제       |                           |
| III. 문화기술적 방법     |                           |
| 1. 용어             |                           |
| 2. 특징             |                           |

## I. 서 론

역사에 대한 이해방법으로 ‘위에서 아래로(top down)’ 살펴보는 방법과 ‘아래에서 위로(bottom up)’ 추적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대개의 역사서술이 왕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라면, 민중사와 같이 민중의 생활세계에 초점을 둔 역사서술방식은 그와 대비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기층민중의 삶을 통해 전체 역사를 파악해나가는 방법은 그 연구자료로 지배층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의한 (또는 지배층에 대한) 체제적 성격의 문헌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에 의한 (또는 지배층에 대한) 체제적 성격의 문헌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민중 속으로부터 나온 자료, 즉 민중의 개인서신, 일기, 이야기, 설화를 비롯한 또 다른 영역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좋은 예로 조동일의 《민중영웅이야기》<sup>1)</sup>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라는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저자 조동일은 문헌연구, 다시말해 문헌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민중영웅이야기가 떠도는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문헌연구에 나타난 통설을 보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설을 뒤집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문헌 속에 감금되어 있었던 최제우를 민중의 영웅으로 복원시켰다. 동학 문헌에서의 최제우는 개혁 후 오만 년만에 처음으로 한울님을 만나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도를 깨닫게 된 대신사 또는 제세주로 소개되어 있다. 반면 최제우가 태어나 주로 활동했던 경주 지방의 사람들에게 최제우는 그저 어느 때 누구집 아들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은, 어느 친숙한 ‘할배’일 뿐이다. 그러나 이 할배는 민중에게 많은 꿈과 용기를 주는 존재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또하나의 진실을 찾아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인가? 이에 대해 조동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야기는 물론 그 자체로 본다면 허황된 것이다. 그러나 허황된 이야기가 허황되지 않은 뜻을 지니고 있다. 허황되지 않은 뜻을 찾아낸다면, 이야기는 역사나 사상에 관한 문헌 이상의 의의론 지닐 수 있다. 이야기를 허황된 것으로만 다루면서 역사적 경험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다 한다면, 이야기는 물론 역사마저도 바로 이해될 수 없다. 이야기는 생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방식이다. 이야기는 태초부터 있었다...그 뒤에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상이나 역사를 다룬 책 같

1)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서울 : 문예출판사, 1992).

은 것들이 별도로 생겨났지만, 이야기가 지닌 포괄적인 기능이 그 때문에 정지된 것은 아니다...그런데 일단 경전이 편찬되면 경전에 들어있지 않은 잡스러운 이야기는 이단시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야기의 자유로운 창작이나 전승은 제한해버린 것도 흔히 있었던 일이다.<sup>2)</sup>

책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진실에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이처럼 연구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형성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가, 필자들이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s)’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질적 연구의 특징은 연역적이라기 보다 귀납적이며, 거시적이라기 보다 미시적이다. 즉, 질적연구는 하자없는 가설검증에 얽매이는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는 달리 연구대상에의 깊은 관여를 통해 획득한 폭넓고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살아가는 이야기, 그 속에서 오히려 역사적 실체와 거시적 전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질적연구의 관점이자 입장이다.

질적방법은 연구자가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양적방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시말해 현실의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세련되고 완결된 형식미를 추구하는 양적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그 해결의 돌파구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질적방법의 전통적 미덕은 창의력, 상식(常識), 그리고 끈기이다.<sup>3)</sup>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알바레즈(Luis Alvarez)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당신이 진정한 연구를 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비용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어느 만큼 걸리며, 무엇을 발견할 지를 결코 알 수 없다. 당신은 다만 개척되지 않은

2) 위의 책, pp. 119-120.

3)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eds.,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1992), p. 1.

신천지가 있다는 것과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밝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연구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란 신기루일 뿐이다... 그 골목의 벽에서 멈추지 말고 옆으로 돌아가 보라. 만약 우회할 수 없다면, 벽 위로 기어오르거나 밑을 파고 들어가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sup>4)</sup>

그러면 도서관연구에 있어서도 이 말은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의 도서관 현실은 꼭 막혀 버린 골목처럼 보이지만, 연구자가 질적연구의 미덕을 한껏 발휘한다면 신천지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문헌정보학은 연구대상으로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며, 이론의 응용성이 강한 사회과학이다.<sup>5)</sup>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은 주로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또한 문헌정보학은 개별 도서관 현장의 서비스행태나 조직구조 등을 평가하거나 개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밀착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사실에서 이론을 발견하거나 개발해나가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연구자세가 어느 학문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연구에 있어 세련된 ‘형식주의(formalism)’보다 현장의 서비스 및 조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용성(practicability)’과 ‘적실성(suitability)’을 필요로 한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 현장과 그 현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제반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을 ‘도서관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sup>6)</sup> 도서관 현상은 장서를 가운데 두고 이

4) 위의 책, p. 1에서 재인용.

5) 필자들은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랑가난단, 버틀러, 세라 등의 선구적 도서관학자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힌다.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전개한 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rchie L. Dick,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Social Science: Neutral and Normative Conceptions”, *Library Quarterly*, vol. 65 no. 2 (1995), pp. 216-235. ; 이수상, “한국사회과학과 문헌정보학”, *학기논고집*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5집 (1995. 2), pp. 269-283.

6) “사회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문헌정보학은 ‘문헌정보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라고 형식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때의 ‘문헌정보 현상’이란 매우 애매한 말이다. 문헌정보학은 도서관학에서 비롯된 것

용자와 사서에 의해 발생한다. 이용자는 장서를 이용하며 장서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한다. 사서는 장서를 개발하며, 사서의 '직업적 힘'은 장서로부터 나온다.<sup>7)</sup> 따라서 이용자와 사서라는 사람의 요소가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사람과 그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를 연구할 때는 통계와 같은 양적방법 보다 연구대상의 복잡다단한 면을 규명하기 위해 질적방법이 요구되는 면이 있다.

한편 심든 좋은 우리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미국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1980년대 이후 그 관심의 정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리라고 보아진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라야 피델(Raya Fidel)은 넓게 정의된 정보검색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1986년 이후 적어도 20개 이상의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이 질적방법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861년에서 1993년까지의 박사학위논문들의 초록을 수록한 초록집(Dissertation Abstracts)을, 질적(qualitative)·문화기술지적(ethnographic)·인류학적(anthropological)·자연주의적(naturalistic)·근거이론(grounded theory)·현상학적(phenomenological)·해석학적(hermeneutical)·해석적 방법(interpretive methods)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약 90개의 박사학위논문을 건져올릴 수 있었다. ...Library Quarterly 최근호(October 1993)는 질적연구를 다룬 논문들을 집중 소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에서의

이고, 도서관이 없는 문헌정보학이란 생각하기 어렵다. 서구에서는 개체 도서관이 지역사회 개발의 교두보로 기능하며,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독서실'로 기능하며, 개척단계에 있는 한국도서관 현장을 방치한 채, 실체도 없는 '문헌정보 현상'을 운운하는 것은 한국도서관 발전의 현단계도 도외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직을 30년동안 맡아본 이봉순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가 한국도서관 현상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현상을 개탄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이봉순, "한국의 문헌정보학 존재인가? : 이봉순 관장과의 대담", 도서관문화, 36권 1호(1995. 1·2), pp. 4-23에 잘 나타나 있다.

- 7) 사서에 의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된 장서야말로 사서가 직업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p. 72에 잘 나타나 있다.

질적접근법의 도래를 알렸다.<sup>8)</sup>

이처럼 미국문헌정보학계의 경우 양적방법을 보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는 시각으로 질적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학문연구에 있어서 인간적 요소를 외면해온 형식적 과학주의의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성을 추구하는 논문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결들이거나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이 미국문헌정보학의 뚜렷한 한 줄기로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에게도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 II. 질적연구

### 1. 질적연구는 돌연변이인가?

질적 연구방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요술 방망이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양적연구가 자연과학의 전통과 초기 사회과학의 실증주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적연구도 철학과 자연과학의 흐름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sup>9)</sup> 양적연구가 엄밀한 계량화를 추구하는 수학적 지성에 의존한다면, 질적연구는 인간의 논리적 사고력으로부터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방법이 근대 이후 과학의 발전에서 비롯된 반면, 질적방법의 기원은 고대에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이러한 질적연구의 흐름 속에 아리스토텔레스, 코페르니쿠스, 프란시스 베이컨, 뉴턴, 다윈, 파스퇴르,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과학지성사의 거장들이 출몰해 왔다.<sup>10)</sup> 과학지식에

8) Alan R. Sandstrom and Pamela Effrein Sandstrom, "The Use and Misuse of Anthropological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he Library Quarterly*, vol. 65, no. 2 (April 1995), pp. 161-162.

9)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eds., 앞의 책, p. 2.

10) 위의 책, p. 2.

대한 질적 접근방법을 놓고 논의를 전개한 바 있는 트라버스(Robert M. W. Travers)는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페르니쿠스는 명망있는 수학자였지만, 그의 영원한 업적은 자료의 수집이나 어떠한 수학적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본질에 대한 질적 이론에 있는 것이다.<sup>11)</sup>

우리는 흔히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한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낸 위대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우리는 그를 통해 현상을 근본적인 면에서 의심하고, 기존 지식의 억압에서 벗어나 끈기있게 진실을 견져올리고자 하는 것이 질적연구의 지적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트라버스는 다윈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다윈이 만약 현대의 양적 연구방법으로 교육받고 사회화되었다면 진화론이라는 독창적 이론을 제대로 정립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의 야생생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종(種) 사이의 변이는 환경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다윈의 관찰을 가설검증 패러다임에 의한 재래의 미국 행태주의 연구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긴 하나 가능하다. 그러나 다윈은 다른 섬에서의 같은 종의 속성을 측정해보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았다.<sup>12)</sup>

다윈은 자신이 그림을 곁들여가며 기록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깊이 파고들었으며, 자연환경의 변화와 종의 차이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보여 주려는 시도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것에 논리적 분류를

11) Robert M. W. Travers, "Some Comments on Qualitative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Use of Constructs Derived from Phenomenal Experience", in *Qualitative Evaluation: Concepts and Cases in Curriculum Criticism*, G. Willis, ed. (Berkeley, Calif.: McCutchan Publishing, 1978), pp. 23-31, 위의 책, p. 3에서 재인용.

12) Robert M. W. Travers, p. 27, 위의 책, p. 3에서 재인용.

적용하여 종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sup>13)</sup>

이처럼 다윈은 선부른 가설설정과 가급적 많은 수의 실험측정을 통한 검증작업을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현상에 대해 천착하여 그 자신이 나름대로 보고 느낀대로 기록한 자료로부터 진화론적 함의를 추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 자연계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밝혀준 두 가지 지적 혁명, 즉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견해를 부정했을 때 일어난 제1혁명과 다윈이 인간은 자연에서 독립되어 있다기보다 오히려 그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어난 제2혁명이<sup>14)</sup> 질적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연구행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질적연구를 과학지식의 전통에서 벗어난 돌연변이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 2. 단선적 과학주의에서의 탈피

일반적으로 엄격한 형식성을 추구하는 학술연구에 있어서, 연구과정(research process)은 가능한 한 믿을 수 있고 타당한 결과물을 생산하며 새로운 이론이나 관행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이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특정한 방식으로 짜여진 순차적인 단계를 말한다.<sup>15)</sup> 전통적으로 그것은 '단선적인(linear) 과정'인데, 가설의 형태로 예측이 설정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가 수집되는 '과학적 연구'가 이러한 연구과정의 좋은 예이며 이러한 접근법에서 논리연역적인(logico-deductive) 이론이 비롯된다.<sup>16)</sup>

위의 단선적인 과정에 대비되는 것이 '나선적인(spiral) 과정'인데, 클레이

13) 위의 책, p. 3.

14) Richard E. Leakey and Roger Lewin, 오리진, 김광역 역 (서울 : 학원사, 1985), p. 27.

15)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eds., 앞의 책, pp. 4-5.

16) 위의 책, p. 5.



서(B. Glaser)와 스트라우스(A. Strauss)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접근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17)</sup> 여기서 ‘나선적인 과정’이란 현장에서 가능한 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어떠한 연구과제나 관점을 도출해 내고, 그 과제나 관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단계의 개념들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또다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나가는 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나선이 진행될수록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이처럼 질적연구가 추구하는 것은 연구대상(어떠한 현상이나 상황, 현상)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실험적 가정에서 논리적으로 연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자료수집을 선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에 질적연구로서의 근거이론을 정립한 글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자신들이 질적 연구를 주창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사회연구 방법에 대한 책들은 주로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에 초점을 모아왔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사회학은 이론의 검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연구자가 이론검증에 앞서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적합한 개념과 가설을 발견하는 작업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사회학이 직면한 기본 과제이다. 우리 사회학자 모두는 사회 연구에 있어서 이론의 검증은 곧바로 이론의 생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

17) Grounded Theory는 ‘자료로부터 발견되거나 발전되어가는 이론’을 말한다. 이때의 ‘자료’란 일반적인 학술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헌자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자료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Grounded Theory Research는 문헌자료에 나타난 개념을 조합함으로써 이론을 이루는 방식을 멀리하고, 인류학에서의 ‘현장살이’처럼 연구대상에 대한 폭넓고도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게 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을 발견하고 이론을 발전시켜나가는 연구이다. 따라서 Grounded Theory는 ‘현장자료에 근거한 이론’으로, Grounded Theory Research는 ‘현장을 토대로 한 연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Barney G. Glaser and Anselm L.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New York: Aldine de Gruyter, 1967), pp. 1-6에 잘 나타나 있다.

다 : 그러나 많은 사회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이나 이제 겨우 자신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외면해왔다...현재 사회학연구에 있어서 검증작업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론을 도출하려는 욕구는 비록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연구의 경우에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sup>18)</sup>

클레이서와 스트라우스는 당시 미국 사회학계 전반에 걸쳐, 굳이 가설증명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을 놓고 서베이를 하고 통계처리를 하는 데 급급해지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은 그들에게 큰 흥미가 없었다. 그들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모습을 이해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상식과 자명한 일이 과연 상식이고 자명합가를 따져보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다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양적연구와의 대비를 통해 질적연구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질적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ethnographic research), 자연주의적 탐구(naturalistic inquiry), 현장 연구(field research), 비참견적 측정(unobstrusive measures), 관찰(observation), 근거이론 연구(grounded theory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 해석적 과정(interpretive procedures), 생활사 방법(life history method), 일상생활 이론(the theory of everyday life), 사례 연구(case study) 등의 다양한 이름들을 포괄하는 말이다.<sup>19)</sup>

양적연구가 실증주의적이고 계량적인 접근방법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질적연구는 특정한 틀에 의하지 않고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18) 위의 책, pp.1-2.

19)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des., 앞의 책, p. 6.

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적연구가 연구를 수행함에 앞서 어떤 선행적인 분석틀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도식적 파악을 배제하고 전면적 이해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가치 인식, 규범적 진술 등 주관적 대상이해를 금기시하는 데 비해,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의미(meaning)’가 매우 중요하다. 즉, 양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절연되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가능한 한 일치하거나 접근하여 주관에 충실하여 이해를 시도한다.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신과 자신의 의식도 연구대상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자의 의식과 연구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획득된다. 여기서 상호주관성이란 ‘공감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 타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sup>20)</sup>

양적연구과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존이론에서의 연역적 추리를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에 따른 관찰과 자료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결과(result)’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질적연구에 있어서는 ‘과정(process)’이 중시된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이해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미시적이다. 양적연구에서 흔히 이루어지기 쉬운 것처럼 저시적 안목에서 연구대상을 재단하고 그 분석틀에 연구대상을 대입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질적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목을 하며, 빗방울을 모아 대하를 이루려는 입정을 가지고 있다. 인류학자 전경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질적연구의 ‘과정적 측면’과 ‘미시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0)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홍기형 역 (서울 : 문음사, 1990), pp. 97-103.

(인류학자에게 있어) 현지작업의 대상은 숫적으로 소규모이며,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구조의 의미를 해독하고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인류학자는 주민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연구자 자신이 주민들의 삶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표 1〉 계량적 연구와 질적연구의 차이점<sup>21)</sup>

차원	계량적 패러다임	질적 패러다임
목적	예인과 통제 : 인간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한다.	이해 : 인간의 해석과 지각을 이해하려 한다.
실재	정체성 : 실재는 변화되지 않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동성 : 실재는 인간의 지각이 변화됨에 따라 변화한다.
관점	국외자 : 실재는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로 존재한다.	내재자 : 실재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바의 것이다.
가치	가치개방성 : 가치는 적절한 방법론적 절차로 통제할 수 있다.	가치제한성 : 가치는 영향력을 가지며,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할 경우 이해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초점	개별성 : 미리 선택하고 정의한 변인을 연구한다.	총체성 : 전체적 또는 완전한 상황이 추구된다.
방향	검증 : 미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다.	발견 : 수집된 자료에서 이론과 가설을 발견한다.
자료	객관성 : 자료는 인간의 지각과 독립되어 있다.	주관성 : 자료는 환경 속에 있는 인간의 지각이다.
도구	비인간 : 미리 구성한 검사, 관찰기록, 질문지, 평정척도 등을 사용한다.	인간 : 인간이 일차적 자료수집 도구이다.
조건	통제성 : 통제된 조건 하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자연성 : 자연적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결과	신뢰성 : '엄격'하고 반복가능한 자료를 얻기위한 실험설계와 절차를 강조한다.	타당성 : '실제적'이고 '풍부'하며 '총체적'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설계와 절차를 강조한다.

21) Susan Stainback and William Stainback,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김병하 역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2), p. 23.

느낌 등을 중요시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흔히 과학적 방법의 대명사처럼 간주되고 있는 통계적 작업은 질적인 연구와는 궁극적 목적은 동일할지언정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필자는 결코 양적방법이 인간의 삶에 관한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양적방법의 장점은 현상의 커다란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관찰자로 하여금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그러나 질적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인류학자는 양화(量化)의 수준에서 이해되는 범위를 초월한 인간의 삶을 경험해보고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양적방법에 궁극적인 기대를 걸지 않는다.<sup>22)</sup>

〈표 1〉은 미국의 교육학자들인 수잔 스테인백(Susan Stainback)과 윌리엄 스테인백(William Stainback)이 정리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차이점이다.

#### 4. 질적연구의 방법과 자료

위에서 보듯, 질적연구에서는 기술(記述)적인 자료가 중요하며 분석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진다. 질적연구의 대표적 자료수집방법은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심층적, 개방된, 비지시적) 면담, 그리고 기록분석 등이 있다.

여기서 참여관찰이란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대상 속으로 들어가 관찰하는 것이다. 참여의 정도는 적극적인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일원이 되어’ 그것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방식이다.<sup>23)</sup> 비구조화된 면담이란,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 볼 수 있는 서베이방식에서처럼 사전에 개념을 설정, 조합하여 설문지를 만드는 것과는 달리, 연구

22) 전경수, “문화란 무엇인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제3회 초청강연회 발표자료(1995. 4. 18. 부산대 인덕기념관) p.9.

23) 참여관찰에 대한 대표적 저술은 James P. Spradley,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희봉 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이 있다. 이 책은 특히 문화기술적 방법(ethnography)에 의한 참여관찰 기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가 면담의 주제만을 정하고 면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질문의 숫자나 질문의 표현들을 미리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다.<sup>24)</sup> 기록분석은 연구대상과 관련되거나 연구대상으로부터 나온 문서·논문·도서·시청각자료·인구통계 등 각종 자료의 내용분석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형태나 경로로 작성된 기록자료를 입수하여 그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연구기법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생활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세계를 깊이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하여 점차 체계화하는 데 유용한 것들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사람들, 장소, 상황, 대화 등에 대한 풍부한 기술적 자료이며 통계적 절차에 의해 쉽게 취급될 수 없는 연성적인(soft) 성격울 가진다. 또한 여기에는 개인의 삶, 이야기, 행위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조직의 기능수행, 사회적 운동, 개인과 조직간의 상호작용적 관계 등에 관한 연구도 포함된다.<sup>25)</sup>

## 5.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

질적연구는 오해를 받기 쉽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과학(science)’이 아닌 ‘과학주의(scientism)’<sup>26)</sup>에 기반한 양적연구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심분야를 보다 깊이있게 연구하고, 나아가 학자가 되고자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연구방법론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야 한

24) Alan Bryman,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홍동식·조정문·고승한 공역 (부산: 전문출판사, 1992), p. 233.

25)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eds., 앞의 책, p. 6.

26) 질적연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충실하려는 입장을 과학주의(scientism), 신실증주의(neo-positivism), 행태주의(behaviorism), 양화주의(量化主義, quantificationism)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이러한 논의는 최협, “계량적 접근과 질적 접근”, 김동일 등, 사회과학방법론비판 (서울: 청람, 1990), pp. 69-85에 잘 나타나 있다.

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교수되지만, 그 연구방법들을 받치고 있는 인식기반은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측정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필자들은 그것을 '과학주의'라고 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나오는 연구방법론 관련 책자를 살펴보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책들은 선두(先頭) 지면에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을 내걸고 과학주의의 입성(入城)을 알리고 있다. 이제 학문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만 과학이 될 수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과학적 연구'란 가설검증을 핵심으로 하는 양적연구를 말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논의는 커다란 논쟁이 될 수 있으므로 뒤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다만, 사회현상을 진지하고 실감나게 연구해보고자 대학원의 문을 두들긴 사람들에게 이른바 '과학적 연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음의 글은 서양의 한 교육학자가 학문초입기에 느낀 실망과 좌절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학회에서) 발표된 대개의 논문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technique)이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실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항들, 즉 숫자나 방법, 의미없는 문장 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논란을 벌이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 즉 '삶의 참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다...분명 재미있어야 할 기사들이나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목들은 흔히 인간의 일은 거의 다루지 않고 방법론적인 신중성이나 측정, 통계분석만을 강조하고 있어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이러한 기사들 읽게 될 때면 '신선한 자두를 기대했다가 바삭 마른 자두를 받는 꼴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신중과 정확이라는 이름하에 향긋한 주스는 인생으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sup>27)</sup>

그러면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일반성'과 '객관성'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

27)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p. 4-5.

서 필자들이 개선하는 견해는 위의 인용문이 실린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이란 책에 주로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이 책을 쓴 배릿(L. S. Barritt)과 그의 동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질적연구에 천착해왔고, 이 책을 통해 교육연구 위에 군림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증분석적인 방법론의 세력을 꺾어보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28)</sup>

### (1) 일반성의 문제

질적연구를 둘러싼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이 ‘일반화의 문제’이다. 이 때의 질적연구는 사례연구와 거의 동일시된다. 하나의 사례에 대한 특정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곧잘 사례연구에 던진다. 사례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이 모집단 중 대다수 집단에 ‘공통적이고(common) 전형적인(typical)’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적절하고 현실적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 대해 일반화의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잘못임을 밝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사례연구의 일반화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질적방법으로서의 사례연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적방법의 관점에서 사례연구를 바라보는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한 사례의 연구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과 행위들이 항상 관찰되기 때문에 한 사례의 모집단을 정확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점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례연구의 ‘이론화를 위한’ 일반화이지 ‘모집단이나 전체를 위한’ 일반화가 아닌 것이다.<sup>29)</sup> 즉 한 사례연구가 그 자체로서 적실하고 타당하면 되는 일이지, 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이나 전체 집단에게서도 똑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은 부분을

28) 위의 책, p. 20.

29) Alan Bryman, 앞의 책, p. 122-123.



통해 전체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는 항상 변화하며, 실험실에서의 화학물질처럼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전체를 알고싶다는 인간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켜주려는 사회과학자를 위해서도, 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모습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일반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배릿과 그 동료들은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을 보면 그 집단에 대해 무언가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습니다. 평균은 우리에게 그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집단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성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주지 못합니다...평균치란 다만 계산절차에 밝은 통계학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일반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는 바가 없는 수치일 뿐입니다. 집단은 역동적이고 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균은 그것이 표준편차이든, 변량이든 간에 통계적인 조작물일 뿐, 집단의 성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적절히 묘사해주지 못합니다...만일 사회과학자들이 소설가들처럼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명확하고 상세할 수 있다면, 또 그들의 연구대상들을 직접 찾아가 원인결과를 물어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연구는 한결 솔직하면서도 적절한 것이 될 것입니다.<sup>30)</sup>

## (2) 객관성의 문제

‘과학적 연구’에서 객관성이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논문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여야 하며, 과학적 법칙이 논문을 꿰뚫어야 한다. 인간은 편견에 가득한 존재이며, 따라서 논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가 실리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이처럼 사회과학자들은 ‘객관성’이란 이상에 매끈 논문을 갖다바친다. 김영민은 학자들이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논문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30)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p. 48-49.

있는 현상을 ‘논문중심주의’라고 이름지우며 비판하였다.<sup>31)</sup> 그렇다면 이 ‘객관성’이란 성립가능한 일이며 또한 ‘주관성’이란 그렇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에 대해 배럿 등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반박한다.

첫째, 객관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편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면, 우리가 객관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모든 연구는 어떤 ‘사람’에 의해 행해지기 마련이어서 그 연구를 행한 사람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특히, 정확하고 통제되고 객관적인 연구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연구는 조사자 자신의 더 많은 개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객관성을 주장하며 주관성을 회피하다는 정보의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소위 절차라는 것이 조사자의 통찰력을 대신하게 되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 일어난 통찰된 관찰들을 기록하는 데에도 무수한 제한들이 가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개개인의 일상의 경험들은 매우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는 남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물을 바라볼 것이라고 ‘주관적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일 주관적인 경험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우리는 일상 생활의 복잡성을 통한 조정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절차의 객관성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의 주관적 경험들이 매우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sup>32)</sup>

### Ⅲ. 문화기술적 방법

#### 1. 용 어

문화기술적 방법(文化記述的 方法, ethnography)은 질적 연구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제반 질적방법을 종합한 성격을 띠고 있다. ethnography라는

31)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7권 4호 (1994), pp. 1261-1282.

32)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p. 44-47.

용어는 인류학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초창기 미국인류학에서 주로 외국(미개사회, 저개발국)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를 국내에서 번역할 때, 처음에는 민족지(民族誌) 또는 민족지학(民族誌學)이라고 일컬어왔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할 경우, 이 용어 속에 깃든 초기 서구 인류학에 있어서의 서구우월주의적 함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초래된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인류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점차 영향을 끼쳐왔는데, 양적 연구방법에 한계를 느낀 많은 학자들이 이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전공분야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국내에서 이를 교육학에 적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김영찬이 이 용어를 문화기술지(文化記述誌)로 번역한 이후, 국내 교육학계에서는 문화기술지라는 용어가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sup>33)</sup> 한편 인류학자 전경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 《문화의 이해》에서 이 용어를 놓고 민족지와 문화기술지를 통합한 개념인 민속지(民俗誌)라고 번역하고 있다.<sup>34)</sup> 여기서는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방법이라는 의미에서 ‘문화기술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 2. 특 징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대상이 지닌 문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뜻한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연구대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중심으로 그 상황의 기저를 이루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김영찬은 문화기술적 방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33) 이용숙, “교육연구에 있어서 민족과학(ethnoscience) 접근방법의 적용”,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14 (1987), p. 131.

34) 전경수,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4), pp. 200-202.

첫째, 문화기술법은 총체적 접근을 강조한다. 문화기술법은 연구대상이 여러 요소와 관계로 이루어진 총체로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탐구하려 한다.

둘째, 문화기술법은 자연적 접근이다. 문화를 탐구하는 사람에게 문화는 그것을 써서 의사를 소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이며, 따라서 그것을 탐구하는 일은 그것을 통제하거나 변용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삶에 동참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문화기술법은 내부자의 관점을 중시한다. 연구자는 한 집단의 문화를 기술하기 위해 그 집단 성원이 그들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뜻으로 그들의 경험을 조직하는가에 대한 모종의 규칙 또는 원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넷째, 문화기술법은 다양한 연구기법을 동원하는 '중다 기법 접근(multi-instrument approach)'이다. 문화기술법은 한가지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가지 기법을 써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는 강점을 가진다.

다섯째, 문화기술법에서 연구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연구도구가 된다. 이 점은 문화기술법의 가장 두드러진 방법론상의 특징이다.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인류학자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를 학습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기술법에서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지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법이 아니라 다각적 검증을 통한 반성적 사고를 토대로 연구의 객관도와 타당도, 즉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의 자세이다.<sup>35)</sup>

이러한 문화기술적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 행태에 관한 어떠한 연구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구 사회과학의 이론에 얽매이는 지식유통구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문화기술적 방법은 비록 그것 자체마저도 서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자각과 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문화기술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정립한 서구 인류학자 스프래들리(James P. Spradley)가 말한 다음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5) 김영찬, "교육인류학의 성격과 과제", *교육학연구(서울대학교)*, 연구보고 94-1 (1994. 8), pp. 16-18.

사회과학자와 그 이론들은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서구의 교육체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주입시킨다. 세상에 대한 잠재적인 감정이 개개 학문 분야의 이론 속에 숨어 있다. 예를 들면, 문학비평, 물리학, 역사학, 그리고 모든 사회과학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문화기술학만이 다른 식의 사실들이 존재함을 기록하고, 이 사실들을 그들 자체의 용어로 묘사하려고 시도한다. 이리하여 문화기술학은 서구의 사회과학 내에서 발생한 이론에 대해 수정을 해 줄 수 있다.<sup>36)</sup>

스프레들리는 서구 사회과학 이론의 한계를 치유하는 처방책으로 문화기술적 방법을 정립하였는데, 해방 이후 서구 학문의 수입에 급급해온 국내 학계가 문화기술적 방법에 담긴 이해방식을 성찰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3. 접근의 순서

이제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을 관찰하고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문화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도하려는 연구자는 우선 자신이 마치 막막한 대해(大海)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끝나갈 무렵에야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하고, 무슨 질문을 해야하며,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확연히 파악하게 될 수도 있다.<sup>37)</sup>

그러면 연구자는 연구의 폭과 깊이, 그리고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망연자실하게 손놓고 있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대상의 실체(맥락, 내용, 함의)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그것이

36) James P. Spradley, 앞의 책, p. 19.

37) Corrine Glesne and Alan Peshkin,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 An Introduction* (New York : Longman, 1992), p. 12.

안고있는 문제를 충실히 드러내고자 한다면, 연구의 실마리가 잡혀나갈 것이며 소기의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대상의 세계에 참여하여 관찰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이해해나가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구자 자신이 가변적인 연구상황에서 방향과 순서를 잡아나아가야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화기술적 방법의 강점이자 난점이기도 하다. 인간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통제된 가설이나 한정된 통제처리 보다 ‘인간’으로서의 연구자의 유연한 통찰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문화기술적 방법의 입장이다.

그러면 문화기술적 방법의 접근순서를 대략적이거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문화기술적 연구의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레슨과 페쉬킨의 《질적 연구 입문(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 An Introduction)》<sup>38)</sup>을 바탕으로 문화기술적 방법의 접근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 단계1: 현장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를 구체화하여 연구문제를 진술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대상과 기간을 설정하고, 참여관찰·심층면접·문서수집 등을 포함한 동원가능한 모든 기

38) 위의 책. 이 책은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참여관찰, 심층면접 등과 같은 보다 세부적인 문화기술적 기법은 James P. Spradley의 두 저서,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79)와 *Participant Observation* (Orlando,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80)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을 실제로 한국상황에 적용한 구체적 사례는 교육학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주로 참조한 논문은 류재정,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학생의 생활과 취업의 의미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2)이다. 또한 최근에 나온 이종각, *교육 인류학의 탐색* (서울 : 하우, 1995)도 이 기법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교육문화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법 중에서 적절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주요 정보제공자를 선정하고,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시간을 적절히 조정한다. 또한 현지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 상황과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예비연구(pilot study)를 수행해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계획을 문서의 형태로 서술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 단계2: 참여관찰에 착수하는 단계

이제 연구대상에 접근하고 그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연구대상을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참여관찰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기술관찰(descriptive observation)'인데 연구자가 자신이 간 곳, 자신의 행동,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등을 가능한 모두 기술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반적이며 스케치적인 관찰(grand-tour observation)에서 출발하여 점차 세세한 부분에 대한 관찰(mini-tour observation)을 해나간다. 제2단계는 '중점관찰(focused observation)'으로 폭은 넓으나 표면적인 조사에 그치게 되는 기술적인 관찰방법에서 탈피하여 연구의 초점을 한 개의 문화영역(cultural domain)이나 몇 개의 상호관련된 문화영역에 맞추는 것이다. 제3단계는 '정선관찰(selective observation)'인데 앞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관련된 현상과 활동을 정선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이 때 '속성 질문(attribute question)'을 주로 하게 되는 데 이 질문의 목적은 사물이나 현상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참여관찰에서는 현장노트가 중요하다. 현장노트는 연구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관찰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면 되는데 가능한 한 매일 기록하도록 하며 또한 그 기록을 매일 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참여관찰자로서 연구자는 현장생활에 참가는 하되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개입하지는 말아야 한다. '번두리 현지인'의 위치에서 참여관찰자는 '자신을 지키면서 버려야하는' 어려운 곡예를 시도해야 한다. 사려깊게 말하고, 행동하고, 때로 침묵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 단계3: 심층면담을 통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단계

이 단계는 현장에서 주요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대상과의 심층면담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심층면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인터뷰 상황을 전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특히 주요 정보제공자)과의 래포(rapport: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물 기울이고 적절한 시점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 분석적으로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계4: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초기의 자료분석에는 관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기(memo writ-

ing), 연구진행을 돕는 분석파일(analytic files)을 만들어가는 것, 수집된 자료에 대략적인 이름(code)을 붙이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후기의 자료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름붙이기 작업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초기의 분석에서 대략 묶어놓은 덩어리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그것들 상호간에 연관짓고, 분류하고, 영역을 구별해 줌으로써 자료에 의미를 부여해가는 과정이다.

#### 단계5; 글을 쓰는 단계(문화기술지를 작성하는 단계)

자료분석에 이어 최종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연구자 자신의 관찰과 느낌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형식이나 스타일은 차후의 문제이다. '문화기술적 글쓰기'와 관련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나(I)'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듯이 서술하는 것은 좋지않다. ②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중요할 뿐, 연구자의 '평가'는 차후 문제이다. ③ 학위는문과 같은 공식적인 형식을 갖춘 글쓰기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문화기술적 글쓰기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충실히 담아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④ 선행연구는 적절히 활용되, 연구자 자신의 아이디어가 묻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역사적 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자료든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활용한다. ⑥ 비밀이 요구되는 기록이나 정보제공자는 가명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러한 변경의 사정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⑦ 연구의 내용을 위해 익명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⑧ 인용하는 말은 가급적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다. ⑨ 문화기술적 글쓰기에 있어서 숫자에 매이거나 엄격할 필요는 없으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 ⑩ 결론과정에 연구자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연구초기에 계획된 것이라면 서술한다.<sup>39)</sup>

이상에서 제시된 문화기술적 방법의 접근순서는 대략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순서가 반드시 일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가 어떤 경우 혼재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선적인 양적 연구와는 달리 순환적인 연구절차를 밟는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대표적인 질적연구인 문화기술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 문화기술적 방법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적용양식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39) Corrine Glesne and Alan Peshkin, 앞의 책, pp.13-179.



## IV.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의 적용

이 장에서는 우선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기존 연구방법들의 대전제로 점차 자신의 입지를 확보해온 ‘과학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국도서관 현장은 한국인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사회 및 도서관 현상의 특수성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이러한 한국도서관 현상의 다면성 및 중층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문화기술적 방법을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적용할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1. 과학주의의 극복과 연구방법의 다양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어온 연구방법들은 무엇이고, 그 방법들은 어떠한 방법론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고려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최근의 연구물로서 이수상의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sup>40)</sup>를 들 수 있다. 이수상은 한국문헌정보학이 주로 의존해온 연구방법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0) 이수상은 이 논문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정체성(indentity)을 점검하고 또한 모색하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한국문헌정보학을 형성해온 지식체계의 주된 특성(주류 패러다임)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도서관학논집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분류하고 연구방법상의 특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 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물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집 (1993), pp. 413-453.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경험적(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에만 너무 의존하여 왔다. 이것은 연구방법을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경우 대개 양적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양적연구가 좋지 못한 연구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당면과제해결을 위해 한국의 문헌정보현상을 계량적 단위(모델)로만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양적연구로만 너무 편중되어져서 질적연구가 간과되어 버렸다는 것이다.<sup>41)</sup>

위의 글에 의하면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어온 연구방법들은 양적방법의 범주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단은 최근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sup>42)</sup>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현상 연구의 거의 대부분을 양적연구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양적연구를 전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양적연구가 수량화나 계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질적연구는 수량화하기 곤란한 실제현상이나 관점 또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어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양적연구에 편향된 한국문헌정보학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귀납식의 질적연구를 도입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sup>43)</sup>

다음으로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애용되어온 양적방법의 방법론적 인식기반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60년대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찰은 조사의 한계와 그 유용성을 고려하여 시도하지 않기로 한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의 방법론적 기반을 이루는 지적 신념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과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른바 ‘과학적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사회과학에 도입하여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확보하려는 ‘과학주의(scientism)’

41) 위의 글, pp. 434-435.

42) 이용남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관리학회), 1집 (1995).

43) 위의 책, p. 133.

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과학에 있어서 이러한 과학주의의 입성은 주요한 경향을 이루고 있다. 배릿과 그 동료들은 이러한 경향을 ‘사회적 과학주의의 허세’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고,<sup>44)</sup> 질적연구의 입장에 서려는 사회과학자들은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충실하려는 사회과학자들을 ‘자연과학주의자들(naturalists)’라고 부르며<sup>45)</sup>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강조한다.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이러한 과학주의의 도래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한국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조감하는 몇몇 연구물에 나타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복희는 1980년대 초에 생산한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 1959년부터 1981년까지”라는 논문<sup>46)</sup>에서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한복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과학적 연구는 자료의 수집을 의미하며 예측되는 상호관계의 진위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자료의 수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진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과학적인 조사연구의 목적은 가설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환경아래에서의 가설의 예언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가설은 가치있는 판단도 아니며 결론에 대한 설명도 아니며 선정된 자료에 대한 요약도 아니다. 대신에 가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상호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를 찾는 것이다. 또한 가설의 진실이란 바로 인과율의 기본요소들이며 이것은 실제의 자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논리에 의존하는 것이다.<sup>47)</sup>

44)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p. 52-57.

45) 최협, 앞의 글, p. 73.

46) 한복희,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인문과학연구소논집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9권 2호 (1982), p. 568.

47) 위의 글, p. 573-576.

여기서의 ‘과학적 연구’란 자료의 수집 보다는 가설검증을 요체로 하여 어떠한 논리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논리’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인식주체(연구자)와 인식객체(연구대상)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실증주의의 전통에 맞닿아 있음은 분명하다. ‘과학적 연구’의 방법론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은 가능한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만 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셋째, 실험조건을 통제해야만 한다. 넷째,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연구절차를 수행해야만 한다. 다섯째,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sup>48)</sup>

‘과학적 연구’에 대한 강조는 이후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주된 경향이 된다. ‘과학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것의 도입과 정착을 강조하는 논의만이 무성한 것이다. 예컨대 엄영애의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sup>49)</sup> 사공철·최정희의 “문헌정보학 분야의 통계기법 사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sup>50)</sup> 등에서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학은 도서관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식군이라는 의미와 함께 변밀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변화시키고 확장하는 방법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과학적 연구는 확증된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생산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된다.<sup>51)</sup>

문헌정보학 연구의 방향이 지금까지의 기술적인 역사적 연구 및 단순한 조사연구의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통계기법 및 이를 응용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분

48)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 36.

49)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1989), pp. 218-219.

50) 사공철·최정희, “문헌정보학 분야의 통계기법 사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집 (1993), pp. 31-60.

51) 엄영애, 앞의 글, p. 217.

석적이며 전문적인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대학원 교과과정 가운데 석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13개대학 모두 「연구방법론」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점에서 통계기법을 비롯한 여러 연구방법에 대한 계량적 연구 및 나아가서는 이에 대한 질적 평가 및 연구가 앞으로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문헌정보학의 이론 정립에 기여하는 학문적 성숙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sup>52)</sup>

이러한 논의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을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 연구’로 표현되는 ‘계량적 실증주의’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 주류 방법론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이러한 논의들도 ‘과학적 연구’를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복희는 도서관학 분야에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부딪치는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해, 또한 엄영애는 도서관학에 적합한 연구방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학의 주제분야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례와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학은 인간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찰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서관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연구가 성공하기 어렵다. 셋째, 자료를 수집하는 방편인 경험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역사성과 사회성을 띠는 도서관을 놓고 실험에 의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sup>53)</sup>

과학적 연구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도서관학이 인문학적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이 될 수 없는 영역이 많으므로 과학적 연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도서관학분야에 적용하거나 혹은 도서관학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sup>54)</sup>

52) 사공철·최정희, 앞의 글, p. 54.

53) 한복희, 앞의 글, p. 576.

54) 엄영애, 앞의 글, pp. 218-219.

과연 가설검증과 계량화를 주된 수단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는 학문의 과학성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논리체계인가? 그것은 20세기 들어와 미국 사회과학계의 방법론적 기반으로 기능해왔으나, 미국사회과학 내에서도 이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시도하는 지적 흐름이 한켠으로 흘러왔다. 이러한 흐름 중 뚜렷한 물결을 이루는 경우가 앞에서 살펴본 배릿과 그 동료들의 학술운동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과학적 연구’의 환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인식에 대해 비판함에 있어) 손다이크(Thorndike)가 1918년에 발표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양적으로 존재하며, 무엇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그것의 질 뿐만이 아니라 양까지도 안다는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손다이크의 가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냐 없는냐의 문제는 어떤 검증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다면 단지 검증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입니다. 언어는 통합성(integrity)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도구(measures)를 만들어내고, 손다이크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바쁜 사회과학자들은 언어의 통합성을 무시했습니다. 손다이크의 이런 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어느새 자기성취적인 예언이 되어버렸고, 진정한 의사소통과 사회과학의 장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 측정하지도 못하는 잣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검증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도 검증하지도 못하는 검증법을 만들어내는 일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차라리 상식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의미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과학적 연구활동에 있어서 의사소통이란 무시해도 좋은 하찮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더욱 중요시해야 될 것입니다. 의미를 왜곡시키고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검증법이나 측정법은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회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up>55)</sup>

필자들은 여기에서 ‘과학적 연구’의 전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 나아가 양적방법은 근대의 서구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55) L. S. Barritt · T. Beekman · H. Bleeker · K. Mulderij, 앞의 책, pp. 37-39.

공적을 하였다. 다만 인간과 사회를 자연에 대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과학적 연구’라는 조사방법에는 가설검증, 측정, 실험통제, 객관성, 일반성, 예측 등의 개념들이 주된 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서구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학문적 연구도 ‘과학’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학자들 사이에 그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상당한 설득력을 행사하여 왔다. 즉 자료와 내용보다는 ‘방법(method)’이 특정 연구를 ‘과학’이게 하는 품질보증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과학적 연구’는 사회과학의 유일한 의사통로로 점차 인식되어 그 원래의 성립배경과는 달리 사회과학방법론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반발하는 배릿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과학이란 말은 서로 다른 많은 상황에서 오랜동안 쓰이다보니 정의내리기가 무척 어려운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우리는 과학이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만일 과학이 진정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과학은 여러 다른 상황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단지 방법에 불과했다면 그토록 고도로 숙련된 과학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들도 벌써 오래 전에 우리의 문제를 다 풀었을 것입니다.<sup>56)</sup>

사회과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차가 과학적이면 그 결과는 믿을 만한 것으로 가정합니다...또한 과학적이라고 불리워지는 행태의 글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입니다.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믿음으로 인해 글을 쓰는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언제나 그가 쓴 글 뒤로 사라져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I)’를 터부시할 정도입니다...이 논리에 따르면 최상의 연구란 다른 연구와 견주어 보았을 때,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해진 연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sup>57)</sup>

사실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은 논문을 서술함에 있어서 발화자(發

56) 위의 책, p. 34.

57) 위의 책, pp. 56-57.

話者)로서 ‘나(I)’를 사용하는 문체(style)를 오랜동안 고려해왔으며, 최근의 저서나 논문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sup>58)</sup> 이러한 시도가 현장 사서의 글쓰기에 물꼬를 띄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최근에 쓰여진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난다.

‘여성사서의 일상업무와 그 의식’이라는 제목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 글을 쓰기 위해 후배에게 받은 자료 중 부산대 대학원 학기는 고집에서 질적연구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 이것은 내게 새로운 세계 또 하나의 자유로움을 보여 주었다. ‘질적연구’라는 이름으로 나는 뒤늦게 시작된 내 1년여의 직장생활을 정리도 할 겸 이 글을 쓸 힘을 얻었다...주관이 개입되고 편견이 허용되는 연구라는 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동안 연구자료는 숫자화되고 객관화된 글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던 내게 사례연구와 말이 중요시되는 질적 연구는 객관성 지향의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sup>59)</sup>

위의 글은 대학에서 양적연구의 세례를 받고 한국도서관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서인력이 자신과 현장의 문제에 대해 글쓰기를 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애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글쓰기(현장사서가 의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업무를 서술하는 형태)가 점차 우리 현장에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필자들은 이상에서 논의된 ‘과학적 연구’의 방법론적 결함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박할 생각을 별로 가지고 있지않다. 다만 개척단계에 있는 한국도서관 현장을 가꾸고 일으켜세울 책무를 지고있는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가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도서관현실을 방기(放棄)하는 결과를 낳

58) 이러한 문제혁신 작업의 예는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김정근, “광복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 관장 문제를 중심으로”, 제 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87-100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그것을 한국 문헌정보학계에 소개한 글로는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2집 (1995), pp. 27-59가 있다.

59)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사례조사모임, “여성사서의 일상업무와 그 의식”,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 모임, 1995), pp. 41-42.



게되는 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과학적 연구방법의 정확을 주장하면서도 정량적·수학적 방법론 보다 정성적·인식론적 방법론이 한국문헌정보학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글<sup>60)</sup>도 우리 학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양적연구보다 오래된 학문적 전통으로서의 질적연구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정치한 소개와 논의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 글이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의 방법상의 편향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방법론 논의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한국적 상황에 대한 사회적 사실기술

한국문헌정보학은 한국도서관 현장의 발전에 유용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선진국에서 수입된 이론을 한국도서관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선별하거나 변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단순히 외국의 이론만을 수입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발생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 연구는 현장에 대한 철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서양의 관습, 사고방식 등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질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연구목적의 달성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연구방법도 한국인의 지적 전통에 맞는 것을 이어받거나 발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학문적 전통은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과학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정치학계의 미국추수적 연구행

60) 이용남 등, 앞의 책, p. 135.

를 날카롭게 지적한 독일정치학자 자이델(Bruno Seidel)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시사하는 바 크다.

“나는 분명히 한국사회에 와서 한국사회의 ‘근대화’ 문제에 관한 한국정치학자들의 논의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학자들이 한국문제에 관해 사용하는 개념들은 마치 나로 하여금 ‘고도의 소비사회’가 구가되고 있는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sup>61)</sup>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필자들 중 한 사람인 김정근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가 한국도서관 현장과 유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최근의 저서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sup>62)</sup>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왜 현실은 엄연한 한국의 현실인데 강단의 언어는 외국어인가? 이것은 12년 반 동안이나 내가 익히 알고 지내던 바로 그 외국어가 아닌가? 형식만 한국어를 뒤집어 썼지 내용은 외국내용 그대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언어의 전제가 되는 현실이 없지 아니한가? 여기가 어디 미국의 51번째 주라도 된단 말인가? 그 때 나의 눈 앞에는 너무나도 한국적인 도서관 현장이 처연하게 땅 위에 누워 있는데 강단의 언어와 처방은 외국어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 병은 보통의 한국병인데 처방은 턱없이 고급이었다. 그것은 첨단 수입 외제 처방이었던 것이다. 나는 정말 혼돈스럽고 괴로웠다. 나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sup>63)</sup>

콩트(Comte)의 실증주의로부터 비롯된 ‘과학적 연구’는 개인의 편견없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과학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필자들은 여기에서 ‘과학적 연구’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적실성(현실적합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로 접

61) 윤근식, “사회”없는 정치학과 한국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 :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 어떤가? (서울 : 대왕사, 1983), pp. 85-86.

62) 김정근, 앞의 책.

63) 위의 책, pp. 9-10.

어 들면서 서구사회에 있어서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는 이성(理性)적 도구로 여겨졌던 ‘과학적 연구’는 당시에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실한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릿을 비롯한 일부 논자의 공격을 받고있지만 현재에도 어느 정도 현실적합성이 있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문제를 설명하는 데 ‘과학적 연구’ 나아가 양적방법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필자들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온 양적방법이 전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양적방법은 현실설명력에 있어서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의 글은 현장 사서들의 모임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헌정보학내에서 현장과 학문의 분리현상은 이미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내의 문헌정보학이 체자리를 찾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현장의 패배적인 담론과 학계의 서구적이고 기술적인 담론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현장사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전문직 사서>라는 정의적인 규정을 들 수 있다....(문헌정보학 분야 논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직성에 관한 논의는 ‘사서직은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이다’라는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에 끼워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때 도용되는 이론의 근거는 미국사회에서 사서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가하는 외국의 사례에 대한 인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하나의 이상형을 상정하고 끼워맞추려는 전문직 사서의 논의는 전문직 사서의 현실적합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끼워맞추기가 현장사서나 학자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어서 우리식의 고민을 진전시킨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sup>64)</sup>

위의 글을 보면, 한국도서관 현장의 문제에 대한 ‘미국식’ 해법은 상당히

64)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사례조사모임, “전문직 사서”, 그 논의의 현실적합성을 위하여”,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 모임, 1995), pp. 53-59.

오랜동안 사서와 학자 모두에게 관행이 되어왔으며, 그 방식은 현장 사서가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은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에 있어서 문화와 도서관 현장이 다름을 강조하고, 한국에서의 전문직 사서의 논의는 한국의 도서관 현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타당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sup>65)</sup> 여기서 우리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의 적실성 또는 타당성을 문제삼는 한국도서관 현장의 질타를 듣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문화기술적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기술적 방법도 물론 서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양적연구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문화상대주의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점차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제반 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한국적 맥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도서관의 특수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한국문헌정보학의 ‘토착화 문제’와 연결이 된다. 한국에 문헌정보학이 서구로부터 도입되고 발전되어 온 것도 어느덧 반세기가 되어간다.<sup>66)</sup> 한국문헌정보학의 토착화문제를 논의 하기에 앞서, 인접 사회과학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학은 미군의 진주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진덕규의 진단처럼<sup>67)</sup> 한국의 사회과학은 해방 이후 미국의 압도적 영향 아래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문하는 방법도 미국의 그것을 따르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과학의 질곡의 역사 속에서, 또한 주류 방법론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학문’을 만들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은 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별 학문분야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본다.

우선 행정학 분야에서 원로 위치에 있는 박동서는 1992년 12월에 열린 한

65) 위의 글, pp. 58-59.

66) 최성진, *도서관화통론*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9), p. 274.

67)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집 (1983), p. 67.

국행정학회 연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이란 논문<sup>68)</sup>에서 자신의 연구방법을 자성하고 한국행정학의 연구방향의 재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한 그의 방법론적 고뇌를 여실히 보여주기에 다소 길지만 인용해본다.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사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우선 경주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학도들이 우리의 사회적 사정하고 다른 데서 형성된 ‘이론’을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거기에 부합되는 정보나 사실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그러나 결과는 전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나 찬동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적실성이 적은 경우가 있게 된다. 우리의 학문연구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념론적인 접근이 지배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경험주의적 연구의 역사 체험이 너무나 없어 과학적 방법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렵지만 있는 대로의 현상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경험주의적 사실주의적인 면을 강조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야기되고 있는 행정현상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체험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의 주역들과 면접을 하거나 하여 사례연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분석하고 정해진 답을 이끌어내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연구방법으로서 계량화가 중요하다고 하나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우 많으며, 특히 권력의 문제는 더욱 그러한데 그러한 것까지 계량화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한이 있어도 질적 판단을 배제하다 보니 이상한 지적 연습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고마는 것도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다.<sup>69)</sup>

위 논문의 말미에서 박동서는 오랜 방황 끝에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정연구 초기에 지도교수로부터 이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sup>70)</sup>

68) 박동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 한국행정학회, 26권 4호(1992. 겨울), pp. 1429-1435.

69) 위의 글, p. 1434.

70) 위의 글, p. 1435.

또한 한국사회학계의 대표적 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민족주의와 한국 사회사를 즐기치게 연구해온 신용하는 1993년 12월에 열린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sup>71)</sup>이라는 제목으로 신입회장으로서의 취임사를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사회학이 지향해야 할 문제의 식과 새로운 지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즉, 한국사회학은 학문적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사회학이 되어야 하며,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하며, 개혁과 발전을 지향하여야 하며,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사회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2)</sup> 이 중에서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부분인 ‘실사구시’의 사회학을 주창하는 부분은 현단계 한국 사회학이 처한 방법론적 난국에서 헤어나올 방도를 한국의 학문전통에서 찾고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찍이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실사구시지학(實事求是之學)’을 현대적 형태로 재 창조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실사구시의 학문이란 곧 사회적 사실이 이론보다도 선행한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학문을 말합니다....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학위논문 지도할 때, 먼저 구미 사회학이론들을 가지고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게 하고 그에 맞추어 사실들을 연구 분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이론적 분석틀에 사실을 맞추느라고 중요한 사실들을 잘라내어 버리며, 사실로부터 이론을 정립하는 귀납적, 경험적, 실사구시적 연구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구미 사회학이론의 타당성여부를 검증하는 정도의 결과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경험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학은 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실을 확인하고 기술하는 ‘사회적 사실기술(社會的 事實記述)’도 중요한 학문적 영역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과 이론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어디까지나 사실이 선행하며 따라서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sup>73)</sup>

71)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28집 (1994. 봄), pp. 1-15.

72) 위의 글, pp. 6-12.

73) 위의 글, pp. 7-8.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사실기술’이란 무엇인가. 위의 글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맥락(context)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건져올리고 이 사실들에 근거하여 이론을 정립해나가고 이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논의하여온 문화기술방법론의 인식과 통한다고 하겠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파악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특정 상황 속에 위치하여 편견없이 사실을 이해하려는 질적연구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광억은 1986년에 발표한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 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라는 논문<sup>74)</sup>에서 한국인류학 연구에 문화기술적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을 적실성있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다. 김광억의 다음의 진술은 문화기술적 방법에 대한 그의 관심이 ‘한국인류학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에서의 인류학은 그 학문적 연륜도 짧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류학자의 수도 적어서 ‘한국인류학’의 문제점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그러나 초창기이니만큼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학문적 인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학문수준의 저하에도 원인이 있지만 인류학자의 연구활동이 책임질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현재의 한국인류학의 방법론을 특히 민족지적 연구와 결부시켜서 반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정립을 위한 전제로서 필요하다고 본다.<sup>75)</sup>

오늘날 서구 학계(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질적방법이 점차 수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복잡성이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연구자들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sup>76)</sup> 한국사회과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적방법에 대한 대

74) 김광억,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 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학교), 8권 1호 (1986. 8), pp. 131-157.

75) 위의 글, p. 140.

76) Jack D. Glazier and Ronald R. Powell, eds., 위의 책, p. 8.

안으로 점차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는 문화기술법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77)</sup> 교육인류학이라고 명명된 이 분야의 선구적 개척자 역할을 해온 김영찬은 교육학에서 문화기술적 방법을 활용해본 결과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94년 현재까지 적지 않은 문화기술적 연구들이 축적되었지만, 그 연구들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특징은 ‘연구대상과 주제의 일치’라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달리 말하면, 연구대상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이 바로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주제이고, 문화는 특정 집단의 문화인 만큼, ‘연구대상과 문화의 일치’라는 것이 연구의 의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 집단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문화로 입문하는 과정을 연구의 일부로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화과정을 교육으로 본다면,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78)</sup>

한국문헌정보학에서도 적실성의 문제, 토착화의 문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대표적 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최성진은 1995년 9월에 열린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기조연설로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라는 논문<sup>79)</sup>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최성진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와 도서관 현장과의 괴리현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된 64편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기사중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는 45.3%, 약하게 관련된 연구는 35.9%,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는 18.8%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믿기도 어렵습니다. 도서관봉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수행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반 이상이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77) 김영찬, 앞의 글, p. 34.

78) 위의 글, pp. 35-36.

79) 최성진,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7-14.



까? 이 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논문은 어디서 필요로 합니까? 이 나라에 도서관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연구가 필요하며 문헌정보학자가 필요합니까?<sup>80)</sup>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한 원로급 문헌정보학자가 내던진 이 물음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이제 한국문헌정보학은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문적 성숙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도서관 현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주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여기에서 한국도서관 현장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현실적합성이 있는 이론을 정립해나갈 필요성이 대두한다.

이수상은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의 토착화를 논의하면서 연구방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질적연구를 위시한 다양한 외국문헌의 소개를 통한 연구방법의 다원화 둘째, 한국사회과학의 동향 및 토착화 논의의 원용 셋째, 앞의 두가지 방법들을 소화하여 자체적으로 연구방법을 개발해나가는 것을 들고 있다.<sup>81)</sup>

광복후 50년이 지나도록 이 땅의 도서관현장은 뜻있는 도서관인들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으로서 일어서 있지않다. 이 땅의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 보다 차라리 ‘독서실’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정보·문화센터도 또한 이른바 ‘민중의 대학’도 아니며,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센터’가 아니며, 학교도서관은 ‘교육매체센터’가 아니다. 이 땅의 도서관의 리더(leader)는 전문적 지식을 연마하고 오랜기간 현장업무에 종사하며 도서관봉사에 전적인 에너지를 투여하는 전문직 사서가 아니다.<sup>82)</sup>

80) 위의 글, p. 10.

81)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49권 3호 (1994. 가을), pp. 78.

82) 이러한 논의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에 수록된 김정근, “광복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 관장문제를 중심으로”, pp. 87-100; 김영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실진단과 대안”, pp. 31-52.; 이수상, “대학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19-135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문헌정보학은 이러한 ‘사회적 사실(社會的 事實)’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현상의 본질에 천착하여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한국도서관이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한국도서관 현장의 현단계를 보다 적절히 규정하며 나아가 한국도서관 현장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국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 현단계 한국도서관 현장과 문화기술적 방법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문화기술적 방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가? 한국도서관 현장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를 작성하려는 연구자는 무엇을 보게되며 그것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가? 물론 문화기술적 방법은 한국문헌정보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서관에 대한 그림그리기는 미국도서관에 대한 그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개체 도서관은 미국의 경우처럼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싹이 트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문화기술적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핵심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성진은 최근의 그의 논문,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sup>83)</sup>에서 적지않은 한국문헌정보학 연구물이 한국문헌정보학의 핵심분야에서 벗어난 주변주제를 다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해당연구자들과 직접 대화하여 알아본 뒤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① 도서관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문헌정보학의 핵심주제를 진부하게 여기는 경향 ② 선진국의 연구주제를 추수하는 경향 ③ 문헌정보학 연구영역의 확대를 위한 첨단기술분야 관련주제를 연구하는 경향 등이다.<sup>84)</sup>

83)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준회교수정년기념논총(서울: 논총간행위원회, 1993), pp. 81-112.

84) 위의 글, pp. 91-92.

최성진은 분류편목이나 도서관경영과 같은 문헌정보학의 기본주제에 있어서 아직 한국상황에 적합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나라 도서관분야의 주인이 아니라 방관자라고 질타하고, 선진국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를 별다른 생각없이 채택하여 연구하는 행태를 비주체적이며 한국도서관 현장에 무용한 연구활동이라고 단언하고, 첨단기술분야의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의 영역과 문헌정보학과 의 졸업생의 취업분야를 확대하려는 사고방식에 대해 남의 등네를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문일침을 놓고 있다.<sup>85)</sup>

이처럼 한국문헌정보학은 그 연구대상인 한국도서관 현장의 현 발전단계가 어디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현장이 놓여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연구과제를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정립을 통해 아카데미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이 강한 문헌정보학의 학문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 한국도서관 현장의 발전에 대한 한국문헌정보학의 기여도를 높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주체성있는 연구가 보편적인 세계도서관 이론의 도출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문화기술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한국문헌정보학의 기본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기에서 조목조목 정리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기본영역 규명작업에 있어서 연구자의 시각이 한국도서관 현장의 현단계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화기술적 방법의 활용이 요망되는 한국문헌정보학의 기본주제는 무엇보다도 한국도서관 현장의 절박한 현실적 제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하고,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유통·처리·봉사하는 한국도서관 현장의 업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적연구가 연구대상에 대해 외부적 관점을 투사하려고 하는 반면, 질적연

85) 위의 글, pp. 91-93.

구는 연구대상의 내부적 관점에 서서 연구대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는 연구대상 속의 인간적 요소에 주목해 왔다. 과학주의의 이름으로 외면해 온 절박한 현실적 문제가 연구자 앞에 놓여 있을 때, 연구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문화기술적 방법을 한국문헌정보학에 활용할 경우, 그러한 연구는 한국도서관 현장의 문화적 환경과 절박한 현실문제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한국문헌정보학의 실천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기술적 방법의 적용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미국 인류학의 경우는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과학적 지식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로 부터 문화적 정보를 수집할 수는 없다. 정보제공자들은 물어보고 있고 요구하기조차 한다. 즉 “무엇을 위한 문화기술학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빈곤 이론을 세우기 위해 우리 문화물 연구하는가?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당신은 물에 사는 마녀에 대한 민속 신앙을 연구하고 싶은가? 방사능 폐기물로 우리 식수를 오염시키는 신설 원자력 발전소에 관하여는 연구하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친족 용어를 연구하여 보다 신비로운 이론을 세우고 싶은가?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노인 친척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학교를 연구하여 새로운 교육이론을 세우고 싶은가? 우리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sup>86)</sup>

위의 글은 문화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사회를 들여다보려는 미국인류학에 던지는 미국사회의 절박한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사회가 한국문헌정보학에 부여한 현실적 과제와 그 해결전략은 무엇인가? 이상의 논의에서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정근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나는 이 나라 도서관문제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비유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의 도서관현실은 아직 세포조직이 발달하지 못한 아메바의 단계에 있다.’ ‘우리의

86) James P. Spradley, 앞의 책(1980), pp. 17-18.

도서관현실은 아직 고등동물의 경우와 같은 복잡한 세포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지극히 초보의 단계, 아직은 초기의 개척단계에 있는 우리의 엄연한 도서관현실을 눈 앞에 두고 성장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려 들지 않고 나라 바깥의 남이 하는 대로 말단·지엽·침단에만 눈이 쏠인다는 것은 전술의 일대 실수라고 본다. 이 전술에서 무슨 힘이 생겨 나겠는가? 나는 여기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몰되어 있는 '제국주의 학문'의 커다란 함정을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다음의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응하고 거기서 나오는 대답에 따라 정직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첫째, 우리의 노력은 '기본(basic)'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둘째, 우리의 노력은 '현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셋째, 우리의 노력은 '현단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기초하였을 때 이 땅의 도서관문제의 제3세계적 성격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우리의 노력은 적실성(relevancy)과 실천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sup>87)</sup>

필자들이 여기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의 실천적 과제가 이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상의 논의에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립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한국도서관 현장은 '독서실'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자도서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서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문화기술적 방법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한국도서관 현장의 현단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적 과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원칙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87) 김정근, 앞의 책, pp.97-98.

## V. 결 론

이상에서 질적연구의 특성과 대표적인 질적방법인 문화기술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한국문헌정보학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을 이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양자가 그렇게 칼로 가르듯 나누어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대개의 연구에 있어서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겹치 지기도 한다. 현장의 문제를 규명하는 데 학문적 철저성이 문제이지 특정 방법 그 자체가 연구의 질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인식론적 기초, 그리고 양자의 접근방법이 학문수행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뜻에 따라 '정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 자연과학을 닦기위해 애써온 사회과학은 급기야 인간과 사회도 수(數)로 나타낼 수 있고 실험측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금세기 학문은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실상 과학주의 또는 계량적 실증주의를 의미하는 '과학적 연구'는 학문수행의 일방통행로가 되어왔다. 수학적 정확성으로 예측된 사태를 실험을 통해 실증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진리로 판정하는 학문 정신은 사회 현상의 설명에도 실증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성적 사유는 지각에 호소하는 현전적(現前的) 제시에 밀려나고 있다.<sup>88)</sup>

그러나 사회현상은 수치와 실험을 통해 그 본질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복잡하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과 상호작용한다. 사회현상은 통계와 가설검증에 의해 일견 그 거시적

88) 소광희 등, 현대의 학문체계 :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울 : 민음사, 1994), p. 325.

측면이나 표면적 일모가 파악된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총체성 나아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연구를 넘어서 질적연구로 나아가는 연구방식이 필요하다. 질적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현상의 미시적 요소에까지 주목하며, 연구대상으로부터 나오는 크고 작은 모든 자료를 수집하며, 현상의 이면에까지 깊숙히 잠수하여 현상의 본질을 건져올려 드러내고자 한다.

대표적인 질적연구인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대상의 입장에 서서 연구대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시도하기 때문에 양적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문화기술적 방법의 활용을 통해 연구자는 현실의 절박한 요구, 조직의 외관 속에 가리워진 인간적 요소에 주목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연구대상의 입장에서 그 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는 수확을 거두기도 한다. 문화기술적 방법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열망에 가득찬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연구대상을 책상머리에서 '채단'하고, 실험실에서처럼 '분석'하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조사'하려는 사람에게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문화기술적 접근법이 필요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한국문헌정보학의 양적연구의 편향성을 보완·극복하고 나아가 연구방법론의 다양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80년대 이후 한국문헌정보학은 여타 사회과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처럼 계량화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과학적 연구'를 연구방법론의 대전제로 삼고, 주로 양적방법에 의존하여 한국도서관 현상을 설명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과학적 연구'와 '양적방법' 그 자체의 방법론적 함의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량적 실증주의를 뜻하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 그것을 생산한 서구에서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한국사회과학계에서도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노정해왔다는 사실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문헌정보학은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역사, 전통, 관습, 사회구조 등과 한국인의 가치관, 정서, 인식체계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 현상을 설명하고 그 처방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미국의 문화에서 나온 문헌정보학 이론이 한국의 도서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컨대 서양의 도서관은 '서비스'중심으로 운영되고 한국의 도서관은 '행정'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실이 한국도서관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sup>89)</sup> 한국도서관 현장은 아직까지 사서가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된 장서를 배경으로 하여 전문적 지식을 발휘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단계에 가 있지 않다. 그리고 사서진이 도서관을 '독서실'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보려고 하여도 관료적 통제가 멍에가 되어 그 어깨를 내리누르고 있다. 한국도서관 현장의 현 단계를 생각하고 한국적 문화환경을 고려할 때,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기술적 방법은 연구대상의 문화적 맥락에서 연구대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에 적용되는 문화기술적 방법은 한국도서관 현장의 절박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서관 현장은 광복50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독서실'로 기능하는 등 식민잔재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서관 현장은 지식의 자유로운 광장(forum)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나는 유기체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서관의 장서, 시설, 인적구성, 조직, 이용자 등등 그 어느 것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성장시키지 못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러한 문화기술적 방법에 대한 관심을 아직까지 별반 보이지 않고 있다. 여타 사회과학에서는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매몰되어 온 '서구 백인 중심주의(ethnocentrism)<sup>90)</sup>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문화기술

89)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pp. 74-75.

90) ethnocentrism의 일차적 어의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용어가 인류학에서 사용될 때, 그 문맥상의 함의는 '서구 백인 중심주의'가 된다.



적 방법을 점차 활용하고 있다. 한국문헌정보학 연구가 현단계 한국도서관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하고 그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이러한 문화기술적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경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는 한국도서관 현실에 근거한 주제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한국문헌정보학의 토착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영삼. “교육행정학 연구에서의 문화기술적 접근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12집 (1992), pp. 29-42.
- 김광역. “한국사회연구와 인류학적 방법론: 민족지적 접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학교), 8권 1호 (1986. 8), pp. 131-157.
- 김동일 등. *사회과학방법론비판*. 서울: 청람, 1990.
- 김영기. “도서관현상을 통해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3.
- 김영민.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7권 4호 (1994), pp. 1261-1282.
- . “원전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정포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7차(1995. 5. 19) 발표주제.
- 김영민·김승철 좌담(사회 남송우). “지금, 글쓰기란 무엇인가?”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16호 (1995. 봄), pp. 15-45.
- 김영찬. “교육인류학의 성격과 과제”. *교육학연구* (서울대학교), 연구보고 94-1 (1994. 8), pp. 1-63.
- 김용욱. *도올논문집*. 서울: 통나무, 1991.
- 김웅진 등. *정치학조사방법: 재미있는 퍼즐풀기*. 서울: 명지사, 1993.
-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 . “광복50년에 대학도서관은 광복되었는가: 관장문제를 중심으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87-100.

- . “주제접근법에 의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모형연구”·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3집 (1995. 12), pp. 271-314.
-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2집 (1995. 6), pp. 27-59.
- 김종성. “부산대학교도서관 교육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4.
- 류재정.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학생의 생활과 취업의 의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1992.
-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3.
- 박동서. “한국행정의 과제와 행정학의 재정향”. 한국행정학보, 26권 4호(1992. 겨울), pp. 1429-1435.
- 사공철·최정희. “문헌정보학 분야의 통계기법 사용에 관한 계량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집 (1993), pp. 31-60.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 어떤가? 서울: 대왕사, 1983.
- .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서울: 한울, 1994.
- 소광희 등. 현대의 학문체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울: 민음사, 1994.
- 신용하. “독창적 한국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사회학, 28집 (1994. 봄), pp. 1-15.
-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논문집 (1989), pp. 211-238.
-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사례조사모임. 여성사서의 고용불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동 모임, 1995.
-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식체계에 관한 연구: 문헌정보학관련 학회논문집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집 (1993), pp. 413-453.
- . “한국문헌정보학에 있어서 토착화 논의”. 도서관, 49권 3호 (1994. 가을), pp. 63-84.
- . “한국의 문헌정보학 건재한가?: 이봉순 관장과의 대담”. 도서관문화, 36권 1호(1995. 1·2), pp. 4-23.
- . “한국사회과학과 문헌정보학”.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5집 (1995. 2), pp. 269-283.

- . “대학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119-135.
- 이연옥.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과 구입에 관한 연구: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5.
- 이용남 등.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관리학회), 1집 (1995).
- 이용숙. “교육연구에 있어서 민족과학(ethnoscience) 접근방법의 적용”. 한국교육(한국교육개발원), 14 (1987), pp. 131-157.
- 이용재.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4.
- 이종각. 한국 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서울: 문음사, 1990.
- . 교육인류학의 탐색. 서울: 하우, 1995.
- 장덕현. “사서의 일상적 의식세계를 통해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 부산·경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4.
- 전경수.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4.
- . “문화란 무엇인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제3회 초청강연회 발표자료(1995. 4. 18. 부산대 인덕기념관).
- 조동일. 민중영웅이야기. 서울: 문예출판사, 1992.
- .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1993.
- . 독서·학문·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1: 바로 여기 교실에서.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2.
-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2: 각자 선 자리에서.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4.
-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3: 하노이에서 신촌까지.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4.
-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집 (1983. 6), pp. 65-85.
- 최성진. 도서관학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총 (서울: 논총간행위원회, 1993), pp. 81-112.
- .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7-14.
- 최정태·김정근·이용재. “대학도서관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도서관 정치학장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13권 (1994), pp. 247-284.

한복희.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 : 1959년부터 1981년까지”. 인문과학연구소논집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9권 2호(1982), pp. 567-588.

## 2. 외국문헌

Barritt, L. S · Beekman, T · Bleeker, H · Mulderij, K. 교육연구와 현상학적 접근. 홍기형 역. 서울 : 문음사, 1990.

Bogdan, R. C. and Biklen, S. K. 교육연구의 새접근 : 질적연구. 신옥순 역.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Bryman, Alan.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홍동식 · 조정문 · 고승한 공역. 부산 : 전문출판사, 1992.

Busha, Charles H. and Harter, Stephen P.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Dick, Archie 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a Social Science : Neutral and Normative Conceptions”. *Library Quarterly*, vol. 65 no. 2 (1995), pp. 216-235.

Glaser, Barney G. and Strauss, Anselm 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 Aldine de Gruyter, 1967.

Glazier, Jack D. and Powell, Ronald R.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2.

Glesne, Corrine and Peshkin, Alan.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 An Introduction*. New York : Longman, 1992.

Leakey, Richard E. and Lewin, Roger. 오리진. 김광역 역. 서울 : 학원사, 1985.

Merriam, Sharan B. 질적 사례연구법 : 교육학에서의. 허미화 역. 서울 : 양서원, 1994.

Sandstrom, Alan R. and Sandstrom, Pamela Effrein. “The Use and Misuse of Anthropological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he Library Quarterly*, vol. 65. no. 2 (April 1995), pp. 161-199.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Orlando, Florida :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79.

- .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회봉 역.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Stainback, Susan and Stainback, William.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김병하 역.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2.
- Stevens, Rolland E. ed.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Historical and Bibliographical Methods in Library Research*. Urbana, Illinois : the Univ.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1971.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Beverly Hills, Calif. : Sage, 1984.

##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and Ethnographic Method

Kim Jung Gun\* · Lee Yong Jae\*\*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ethnography'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Ethnography, derived from anthropology, helps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whole and deep aspect of the research object. That is because the researcher puts himself into the life-world of the research object and observes it for a long time. Ethnograph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Until now,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ha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in almost every case. From the 1980s so-called 'scientific methods' using hypotheses testing, have provided the major premise for research methodolog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Korea. And the researchers have seen their research object(Korean Libraries) not in the native perspective but largely in the western(especially American) perspective. There is a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need in Korea for more culturally relative research.

So the desirability of introducing ethnography and other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I. Ethnography and other qualitative methods are needed for the researcher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quantitative methods which have formed the main methodological paradig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While those quantitative scientific methods can be applied to the social sciences, they are not adequate for the social sciences. It is because the research objects of the social sciences are human and social phenomena.

II. It is needed tha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pay more attention to the speciality of Korean libraries. To do researches based on the viewpoint of cultural-relativism, researchers should consider the cultural context of Korean libraries.

During the past years researchers in other social science fields in Korea, especially sociology and pedagogy, have gradually applied the methods of ethnography to their fields. These social scientists have attempted to escape from ethnocentrism, a problem which has greatly influenced past and present research methods. To get a holistic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Korean libraries on the present stage, and to solve their problems radically, it seems imperative tha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pay more atten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ethnography.